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5, Vol. 17, No. 2, 451-466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유 나 현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정서발달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시기가 대학생 때임을 고려하여 대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CDMSE-SF, IPPA, PSI, th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착과 정서지능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 심리적 독립은 정서지능 뿐 아니라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정서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주효과와 부모에 대한 애착, 정서지능 간의 상호작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애착과 정서지능을 각각 상, 하의 두 수준으로 나누고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애착 수준과 정서지능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애착 수준과 정서지능 수준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애착의 질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애착이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서 발달에서 찾으려 했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적 영역을 통칭하는 개념인 정서지능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정서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진로 상담의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어 :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유나현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재학 중. 이기학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기 학, (135-79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진로 결정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당면한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이므로 많은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며 가장 어려워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진로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청년 실업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 현실은 전공에 대한 만족 또는 확신 없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과 진로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이 직업 선택에 대해 느끼는 혼란감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진로 결정, 진로 탐색 행동, 진로 태도 등 진로 발달과 관련되는 주요한 요인들이 탐구되었으며 이들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밝혀졌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Mazurek & Shoemaker, 1997)이라고 정의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패턴의 개인차(Gianakos, 1999), 특정한 진로의 선택(Kelly, 1993; Lent & Hackett, 1987), 진로탐색행동(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등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어져 왔으며, 진로미결정이나 진로탐색 활동, 진로태도(이기학, 이학주, 2000), 직업 흥미(Lent, Brown & Larkin, 1987; Lenox & Subich, 1994) 등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Taylor와 Betz(1983)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이나 자신감이 낮았다.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의 약 40%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밝혔고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확신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개인의 행동선택과 수행 그리고 행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과 행동변화 사이의 주요 매개체라고 하였다. 이는 진로상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키는 개입이 진로에 대한 태도 및 진로 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주요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진로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꾸준히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온 중요한 변인은 애착이다.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이은경, 2001; Ryan, Solburg, & Brown, 1996). 안정된 애착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와 직업 선택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내은, 2002; O'Brien, 1996). 애착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양육자 중에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더욱 강조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성태훈, 2003; Ryan, Solburg & Brown, 1996). 더구나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주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으므로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애착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dino, 1991; O'Brien, 1992). 그 이유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후기 청소년기까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리적 미성숙과 부모 외의 중요한 인물과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 성숙도, 진로 의사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진로 관련 변인들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차례 밝혀졌다(이내은, 2002; Falsman, & Blustein, 1999; Scott et al., 2001; Blustein et al., 1991; O'Brien, 1992). 그러나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이므로 진로 발달 과정에서 이들의 중요성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애착과 심리적 독립으로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어떤 다른 변인과 관계가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진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착, 심리적 독립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진로발달 과정에 미치는 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영향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정서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Ainsworth(1989, 이내은, 2002 재인용)는 애착을 어떤 특정인과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였고 Bowlby(1982, 이내은, 2002 재인용)는 애착관계의 형성이 인간 발달의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적응이 바라지 않은 분리와 상실로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즉, 초기에 신뢰롭고 안전하게 맺어진 양육자와의 애착은 정서적으로 안전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준다. 반면 불안정 애착은 정서적 불안과 공격성 등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Shaver 등(1996)은 안정, 불안정 저항 그리고 회피 애착의 사람들이 감정 조절과 정서 정보 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전략을 채택한다고 보았다. 회피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만 심리적인 수준에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유사한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경우 불안을 느낀다(Dozier & Kobak, 1992). 이러한 결과는 애착과 정서 발달의 관련성을 지지해주며 애착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심리적 독립은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부모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발달 과업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서발달의 현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정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서 영역을 통칭하는 개념인 정서지능을 도입하여 애착, 심리적 독립과의 상호작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지능, 적성, 흥미, 자아개념, 성취욕구 등의 심리적 요인과 연령, 성별 등의 물리적 요인을 포함시켜 왔다(우현주, 2002). 이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개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이 욕구와 자아개념 등에만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인지적 측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접근해왔다(Lee, 2005). 또한 현장에서는 주로 성격과 적성검사, 흥미 검사를 위주로 진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연속적인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 결정에서 정서는 결정의 내용 자체가 되기도 하며 결정 과정을 촉진시키고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인지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로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적인 부분을 배제한 진로 상담은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진로 관련 행동에서 정서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정서지능을 진로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도입하였다(Goleman, 1995). Salovey와 Mayer(1996)는 자신의 내부에 감정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이 어떤 수준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달래고 조절하는 능력,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을 적절히 분발시키는 능력, 역경을 헤쳐 나가는 능력,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정서지능을 설명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정서지능은 감정 정보처리 능력이며, 감정 정보처리 능력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고,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동기를 부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감정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끄는 능력이다(Mayer, Dipaolo, & Salorey, 1990). Goleman(1995)은 정서 경험을 처리하는 것과 인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인지 또는 지적 정보처리 과정은 대뇌의 신피질에서 일어나는 반면 정서를 처리하는 뇌의 중심부는 하위피질 영역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정서 처리 능력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을 인지 처리 능력과 구분하여 알아봐야 함을 의미한다. 진로라는 중요한 과제를 풀어갈 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지각하고 활용하느냐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Kidd(1998)는 정서 경험, 표현 그리고 의사소통이 진로 결정 기술, 진로 조절 기술 그리고 진로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rson과 Carson(1998)은 진로 성공은 심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서지능과 진로 몰입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 관계를 밝혔다. Cooper(1997)는 자신의 감정을 믿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보다 성공적인 진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정순(2004)이 여고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의 수준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등(2003)에 따르면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정서지능의 네 가지 요소 모두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정적 상관은 높은 정서지능이 진로 결정 과제에 있어서 증가된 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고를 돕고 정서를 이해 조절하기 위해 정서를 지각, 접근, 산출하는 능력이 높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 결정 과제에 있어서 보다 높은 자신감을 보고하였다.

요컨대, 진로 결정과 발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이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게 되는 원인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정서 발달과 관련된다는 점을 들어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을 바탕으로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진로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이 부각되며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밝힌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그리고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 간의 상호작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진로 결정에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진로상담 장면에서 진로 결정 문제에 직면한 대학생들에게 부모와의 관계 특성에 기초한 개별적인 진단과 개입을 통한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아닌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요인으로써의 정서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의 주효과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정서지능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의 상호작용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우리나라에서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선택하는 시기가 대부분 대학생 때임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Y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과 서울 소재 S대학교, 부산 소재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88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무작위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설문 34부를 제외한 354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21세

표 1. 연구 대상의 분포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181	51.1
	여	167	47.2
	무응답	6	1.7
학년	1학년	100	28.2
	2학년	124	35.0
	3학년	66	18.6
	4학년	63	17.8
	무응답	1	.3
나이	18-20세	167	47.2
	21-25세	169	47.7
	26세 이상	18	5.1

였고, 범위는 18세에서 28세였다.

측정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Betz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은진(2001)이 보고한 단축형의 25문항 합산 점수의 신뢰도 계수는 .94이다. 응답은 '전혀 확신이 없다(1)'부터 '매우 자신이 있다(10)'에 이르는 10개의 구간에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하위 척도는 해당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하며, 전체 점수는 5개의 하위척도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92이다.

부모 애착 측정 도구

부모에 대한 애착척도는 1987년 Armsden과 Greenburg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청소년들의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개정판 전체 75문항 중 정정숙(1994)이 번안한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정숙(1994)은 28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서 질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착만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소외감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 문항들은 역채점 된다. 신뢰감과 의사소통 문항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의 점수를 뺀 것이 개인의 애착 점수가 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정숙(1994)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88이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는 .63이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측정 도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의 심리적 독립 척도(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하여 각각 69문항 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은희(1992)가 번안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26문항을 제외시킨 112문항 중 어머니에 대한 56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가 불분명하고 연구에 따라 강조하는 하위척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하위 척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각 문항에 대해 거꾸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임을 의미하도록 한다. 정은희(1992)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81,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90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이다.

정서지능 측정 도구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척도 중에 널리 쓰이고 연구되는 Schutte 등(1998)이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th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alovey와 Mayer (1990)의 정서지능 모델에 기반을 둔 33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보고 되었고 2주 후의 재검사 신뢰도는 .78이었다(Schutte 등, 1998).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이다. 각 문항들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5, 28, 33번 문항은 역채점하여 다른 문항들과 합산하며 높은 점수는 높은 정서지능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0.0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기술 통계량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과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애착과 정서지능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1표준편차에 속하는 표본을 제거한 후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Two-way ANOVA: Anaylsis of Factorial Design).

결 과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애착과 심리적 독립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만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r=-.115, p<.05). 애착과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r=.307, p<.001) 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역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242, p<.001). 그러나 심리적 독립과 정서지능 그리고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505, p<.001)(표 2). 이와 같은 결과는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나타내며,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심리적 독립은 이후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애착과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애착과 정서지능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Analysis of Factorial Design)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독립은 예상했던

표 2.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1. 애착	-			
2. 심리적 독립	-.115*	-		
3. 정서지능	.307**	-.035	-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42**	.052	.505**	-
M	54.51	172.46	121.83	140.36
SD	14.32	21.79	12.65	30.53

*p<.05, **p<.01

것과 달리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낮고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이는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애착과 정서지능을 각각 총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총점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내에 속하는 표본은 집단 구분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애착 총점수가 평균으로부터 0.5 표준편차 이상 위로 떨어져 있는 사례를 애착 수준 상(*M*=69.77, *SD*=6.20) 집단에 포함시키고 애착 총점수가 평균으로부터 0.5 표준편차 이상 아래로 떨어져 있는 사례를 애착 수준 하(*M*=36.42, *SD*=9.30) 집단에 포함시켰다. 같은 방법으로 정서지능 수준 상(*M*=138.09, *SD*=8.10) 집단과 정서지능 수준 하(*M*=106.17, *SD*=7.30) 집단을 구분하였다. 애착 수준(상·하)과 정서지능 수준(상·하)을 독립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 수준과 정서지능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애착수준과 정서지능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애착 수준	
		상 *n*=68	하 *n*=62
		M (*SD*)	*M* (*SD*)
정서지능 수준	상 *n*=67	164.04 (24.28)	154.78 (25.82)
	하 *n*=63	129.11 (24.88)	118.18 (28.71)

n = 사례수

표 4. 애착수준과 정서지능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검증

	SS	*df*	*MS*	*F*	*ES*
애착수준	2692.884	1	2682.884	3.957*	.030
정서지능수준	33813.577	1	33813.577	49.689***	.283
상호작용	18.219	1	18.219	.027	.000

*p<.05 ***p<.001

이원변량분석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애착 수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고($F_{1, 126}$=3.957, p<.05) 애착 수준은 변량의 3%를 설명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서지능 수준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F_{1, 126}$=49.689, p<.001). 정서지능 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량의 28.3%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애착 수준과 정서지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 정서지능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상담 장면의 개입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은 심리적 독립과는 부적상관을,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애착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적 독립이 덜 발달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애착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함께 증가함을 시사한다.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심리적 독립과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심리적 독립이 애착과 함께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거나 현재의 정서발달 수준에 대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역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진로 관련 변인들과 심리적 독립의 관련성을 밝힌 기존 연구들(강혜원 등, 2003; Blustein et al., 1991; O'Brien, 1992; Ryan et al., 1996)과 불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혜원 등(2003)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부, 모와의 심리적 독립 간의 상관이 낮았던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박수길과 이영희(2002)의 연구에서 살펴본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부 그리고 모와의 심리적 독립 간의 상관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관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유의미한 관련을 보인 연구들의 설명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검토해야할 것이며 상이한 연구 대상에서 오는 차이, 통제 되지 않은 요인에 의해 발생된 차이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에 따라 심리적 독립 척도의 특정 하위 요인만을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주장도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심리적 독립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 척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척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에 추후 진로 발달에 있어서 심리적 독립의 역할에 대한 합일점을 찾기 위해 보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독립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진로 관련 변인들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를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하겠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심리적 독립은 제외한 채 애착 수준과 정서지능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애착 수준과 정서지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과 정서지능의 높고 낮음은 각각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애착과 정서지능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애착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인 결과는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은경, 2001; 장휘숙, 1997; Ryan et al., 1996)과 일치한다. 또한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임진(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기 때 양육자와의 유대관계로 인해 형성된 애착 형태는 인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애착 형태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성인의 애착 유형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애착의 주효과를 유아기 때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애착이 후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며 진로결정에 대해 느끼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는 유아기 때 형성된 애착이 청년기까지 이어지며 학교와 사회 적응 능력 그리고 진로탐색과 선택 등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임진, 2003; Blustein, Schulthesis, & Prezioso, 1993).

정서지능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인 결과는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조절, 활용하는 능력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효능감에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이는 Tapia(2001)의 정서지능 척도를 이용하여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을 밝힌 Brown 등(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서가 진로 발달 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전까지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여겨져 인지적인 과정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초기 인지행동 이론은 의식적인 인지처리 과정이 정서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Beck, 1976). 즉, 정서를 의사결정 과정과 같은 인지과정의 부산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정서 처리 과정의 통합적인 모델(Greenberg & Safran, 1984, 1986)은 인지, 정서, 행동을 상호독립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 발달 과정에 있어서도 정서의 의미를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Safran(1998)에 따르면 정서는 인간에게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유기체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행동을 유발한다. 그에 따르면 행동은 서로 다른 고유한 정서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정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자신의 행동을 적응적으로 이끌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서지능의 향상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증대뿐 아니라 적응적인 과정을 통한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할 수 있겠다. 더불어 모든 정서는 욕구에서 비롯되므로 정서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할 것이다.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평가, 조절, 활용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를 자각하고 있지 못하므로 진로결정을 효율적으로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정서의 이해와 조절 그리고 활용 능력은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행동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진로 상담의 개입방법으로 정서인식, 이해, 활용 등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일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애착과 정서 발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애착과 정서지능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애착과 정서지능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애착과 정서지능의 상관이 유의미하였던 점과 안정적 애착이 정서지능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Kafetsios(2004)의 결과로 볼 때, 두 변인의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서지능의 효과가 애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큰 것에서 부분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서지능과 애착의 효과가 비슷할 때, 두 변인 간에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인데 본 연구의 결과, 정서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히 크다. 또 다른 원인으로 정서지능의 발달 과정에 애착 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애착이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지만 정서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아직 불충분한 상태이다. 가족관계 뿐 아니라 친구관계 그리고 이성관계에서도 안정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 정서지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차정서를 이차정서와 구분하여 경험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인지행동치료의 일부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자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애착은 정서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지능의 자기보고식 측정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서지능이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해야 본질적인 정서지능의 측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정서지능이 높다고 믿는 경향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일 수 있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어머니와의 애착에 사용된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63으로 기존의 측정 도구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애착 측정의 정확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 대상들이 서울의 Y 대학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제한점

이 있다. 다른 두 대학도 포함되었지만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서 대학 간 차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무선표집을 실시하여 대학생 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 더욱 무리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개념을 성인애착보다 과거에 지각된 애착에 기반을 두고 살펴봤기 때문에 유아기와 아동기 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만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추후 진로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과 정서지능의 상호작용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이 진로 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로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애착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유대관계의 경험이 진로 발달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애착이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를 밝히는 연구와 정서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독립의 전체 척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심리적 독립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은 갈등적 독립이 청소년의 적응 문제와 더 많이 관련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의 관련성이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하위척도 간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므로 특정 하위척도만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관련 변인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내놓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인다. 따라서 심리적 독립과 진로관련 변인들 간의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독립의 구성요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내에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외국의 경우와 같은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혜원, 고향자 (2003). 대학생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6(2), 1-18.

박수길, 이영희 (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성태훈 (2003). 애착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또래 지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현주 (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평수, 김민수 (2003). 유아-부모의 애착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인문과학연구, 8, 113-147.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이내은 (2002).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순 (2004).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진 (2003).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휘숙 (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정숙 (1994).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l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Development, 16,* 427-454.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wood Cliffs, NJ: Prentice-Hall.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96-202.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Blustein, D. L., Schultheiss, D. P., & Prezioso, M. S. (1993).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ct revise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69-88).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

Brown, C., George-Curran, R., & Smith, M. L. (2003).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areer Commit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4), 379-392.

Carson, K. D., & Carson, P. P. (1998). Career commitment, competencies, and citizenship.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95-208.

Cooper, R. K. (1997). Applying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work place. *Training &*

Development, 51(12), 31-38.

Dozier, M., & Kobak, R. R. (1992). Psychology and adolescent attachment interviews: converging evidence for repressing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63*, 1473-1480.

Fa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79-295.

Gianakos, L. (1999).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44-258.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4). Integrating affect and cognition: a perspective on therapeutic chang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559-578.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6).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th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 170-178.

Kafetsios, K. (2004). Attach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abilities across the life cour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129-145.

Kelly, K. R. (1993). The relation of gender and academic achievement to career self-efficacy and interests. *Gifted Child Quarterly, 37*(2), 59-64.

Kidd, J. M. (1998). Emotion: an absent presence in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3), 275-288.

Lee, K. H. (2005)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Differences between four career choice typ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1*(4), in press.

Lenox, R. A., & Subich, L. 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inventoried vocational interes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302-312.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L. (1987). Comparison of three theoretically derived variables in predicting career and academic behavior: Self-efficacy, interest congruence, and consequence thin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93-298.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Mayer, J. D., Dipaolo, M. T., & Salovey, P. (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Mazurek, N., & Shoemaker, A. (1997).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service provid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089 763).

O'Brien, M. K. (1992).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choices and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Chicago.

O'Brien, M. K.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Ryan, E. N., Solburg, V. S., & Brown, S.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 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84-89.

Safran, J. D. (1998) *Widening the scope of cognitive therapy: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emo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London: Jason Aronson INC.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yter, D.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s.

Schutte, N., Malouff, J., Hall, L., Haggerty, D., Cooper, J., Golden, C., & Dornheim, L.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167-177.

Scott, J. D., & Church, A. T. (2001). Separation/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328-347.

Shaver, P. R., Collins, N., & Clark, C. L. (1996). Attachment styles and internal working models of self and relationship partners. In G. J. O. Fletcher & J. Fitness (Eds.), *Knowledge structures in close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Hillsdale, NJ: Erlbaum.

Tapia, M. (2001).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Reports, 88*, 353-364.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원 고 접 수 일 : 2005.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5. 4. 18
게 재 결 정 일 : 2005. 5. 6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5, Vol. 17, No. 2, 451-466

The Effects of Attachment,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a-Hyun Yoo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ttachment,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ata were collected from 354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considering the time of career decision-making. The result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owever,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not significant. Accordingly, psychological independence was excluded from analysis and Analysis of Factorial Desig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level of attachment and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in effect of both the level of attachment and the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were significant. Those with high level of attachment had significantly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an those with low level of attachment. Those with high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lso had significantly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an those with low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However,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level of attachment and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sults, the importance of attachment was confirmed and the role of emo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seen through emotional intelligence. However,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reason for importance of attachment through emotional development was not supported.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of the effects of attach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re discusse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were offered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attachment, psychological independence,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